

## 우울경향이 있는 아동의 미술치료사례연구

백 우 현(영남대 박사수료) · 홍 상 욱(영남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경향이 있는 A(12세 남아)와 B(11세 여아)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A아동의 경우, 3~4개월 전 부터 무기력하고 표정이 어둡고 또래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려하며 언어적 표현도 거의 하지 않는 등의 우울경향을 보였으며 B아동의 경우도 표정이 어둡고 무기력하며 자주 우는 등의 우울경향을 보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이었다. 우울한 아동은 자신과 환경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경험의 방식으로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에게도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므로 심리치료적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백양희, 1998; Beck, 1976).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아동의 내면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하고 바람직한 자기상의 발견을 도모하므로 우울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2013년 1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며 사전·사후검사를 제외하고 주 1회, 5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통영시의 T사회복지관 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손남숙(2004), 최은희(2006), 장혜정(2011)의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아동의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조수철, 이영식(1990)의 자기보고형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투사그림검사인 HTP를 사전·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우울 검사는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량을 비교·평가하였으며 투사그림검사인 HTP의 사전·사후검사는 우울경향에 중점을 두고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회기별 미술활동은 개인별 작품내용 설명 및 반응을 우울경향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아동은 우울점수가 사전 32점에서 사후 16점으로 16점이 감소된 변화를 나타냈으며 B아동은 사전 28점에서 18점으로 10점이 감소된 변화량을 나타냄으로써 A, B아동 모두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술치료가 A, B아동의 HTP에 나타난 그림표현과 심리상태를 살펴 볼 때, A의 경우 사전에는 자아의 표현이 작고 부정적이며 약한 필압으로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보였지만 사후에서는 필압도 강하고 보다 밝고 확대된 자아상의 그림표현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B아동의 경우도 사전에는 자기표현에 자신이 없고 작고, 약한 필압과 무표정한 인물상의 표현이 사후에서는 보다 확대되고 강한 필압의 그림표현과 밝은 표정의 인물의 변화로 우울감소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셋째, A, B아동의 회기별 미술활동에 나타난 우울의 변화를 살펴 볼 때, A아동의 경우 회기가 진행될 수록 자기표현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가치롭게 지각하는 등의 우울감소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B아동 또한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자기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우울감소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안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다 가치롭게 지각하게 됨으로써 우울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동의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보다 적응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